

2020년 3.11  
후쿠시마 핵사고 9주기

# 탈핵 예비 자료집

핵발전소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예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누가복음 10:25~37

이 자료집은 2020년 탈핵주일(3월 8일)을 위한  
예배순서와 기도문, 설교자료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

사무국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1길 20 CI빌딩 203호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메일 [greenchurch@hanmail.net](mailto:greenchurch@hanmail.net) / 전화 02-711-8905

## 후쿠시마 핵사고 9주기를 맞으며

2011년 3월 11일 발생했던 후쿠시마 핵사고가 9주기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9년을 지나며 핵사고가 불러온 참혹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고 수습의 책임을 방기한 채 수수방관했습니다. 제염작업 이후 쌓아둔 오염 흙더미는 태풍에 쓸려 태반이 유실되었고, 이제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지역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피스의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심각한 피폭을 겪으며 노동하고 있으며, 아동들 역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도 문제이지만 이는 핵발전소 사고가 얼마나 해결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이하 핵그런)는 해마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는 예배를 한국교회에 제안하고, 함께 드려왔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이 이야기하듯 그리스도인은 ‘피폭자의 자리’, 즉 고통당하는 이웃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에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UN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의 말처럼 사람이 죽어가고, 수많은 이들이 고통당하는데 감히 돈과 경제성장 만을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핵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는데 감히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우리의 행복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핵 문제를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2020년 탈핵주일예배는 ”핵발전소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고리 1호기 상업가동을 시작으로 40년 넘게 핵발전소를 짓고 운영 중인 대한민국에서 핵으로 인해 가장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핵발전소 인근의 주민들입니다. 핵발전소는 자체 특성상 방사성 물질들을 기체와 액체의 형태로 외부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어나는 건강상 위해는 아직 제대로 조사된 바 없습니다. 한수원이나 관련 기관들은 40년을 넘도록 그저 방사능 기준치를 넘지 않으니 괜찮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다들 그런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 중에 가족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상선암과 같은 질병을 겪은 이들이 생겨나고, 소변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기관들은 기준치 이하이니 질병은 핵발전소와 상관없다는 말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그 중 이른바 ‘균도네 소송’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의 가족에게 별어진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균도씨의 발달장애와 균도씨 아버지의 직장암, 어머니의 갑상선암, 할머니의 위암 등 핵발전소 인근에서 살아가던 가족에게 덮친 병마로 인해 가족은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균도씨 어머니의 갑상선암과 핵발전소의 연관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판결은 한수원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뒤집히게 됩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는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갑상선암으로 인해 공동으로 소송을 한 지역주민들도 있습니다만 이 판결로 인해 모두들 상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웃에 존재하는 강도 만난 이들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에게 핵발전소는 강도와 같았습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위해를 가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핵발전소가 가진 위험성을 알지도 못하고 수십 년을 방사성 물질들에 노출되어 살아온 것입니다. 영화 <월성>의 나레이션을 맡은 황분희 선생

님은 함께 사는 손자, 손녀의 미래를 염려하며 눈물짓습니다.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 부처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한지도 5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돌아오는 대답은 기준치 이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핵발전소 근래 인근 지역은 방사성 물질들로 인한 피폭 뿐 아니라 핵발전소에서 나온 핵폐기물, 사용후 핵연료 보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다시 임시 저장소를 짓겠다는 결론을 낸 박근혜 정권의 공론화 결과에 대해 탈핵활동가들이 꾸준히 문제제기하였고, 재공론화에 들어갔지만 이 역시 핵발전소를 문제없이 재가동하기 위한 공론화에 불과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를 고민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두어야 했지만 결국 지역과 주민들의 문제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는 강도당한 이들에게 참으라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성서는 강도 만난 이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께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이, 그가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웃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돌아보고 친절을 베푸는 것,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자리에 서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생명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곁에 서는 실천으로서 2020년 후쿠시마 9주기 탈핵주일에배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연대

## 2019년 탈핵주일 예배 순서

### - 인사 (일어서서) / 인도자

인도자 /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회 중 / 고통받는 이웃들과, 이 땅의 모든 생명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 - 시편 40편 11-17절 (일어서서) / 인도자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 주십시오.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 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재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 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새번역)

### - 찬송가 15장 1절 (일어서서) / 다함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 - 예배의 기원 (일어서서)

생명의 하나님, 이 시간 이 곳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주소서. 참된 생명과 평화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찬송가 15장 4절 (일어서서) / 다함께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 - 공동 기도 / 다함께

인도자 /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주셨습니다.

회 중 / 하지만 선악과를 통해 우리가 해서도, 꿈꾸어서도 안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인도자 / 핵발전은 편리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회 중 / 하지만 핵발전은 창조세계의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음을 숨겨왔습니다.

인도자 /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체했고 드러난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회 중 / 체르노빌은 먼 나라의 일이라고, 후쿠시마는 특별한 일이라고 태연해 했습니다.

인도자 / 하지만 그 사이 핵발전소는 핵폐기물을 만들며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회 중 / 주여,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함과 용기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 / 이제 우리가 불편해도, 어려워도, 두려워도 핵발전의 유혹을 물리치겠습니다.

회 중 / 오직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평화의 세상만을 바라며 살겠습니다.

인도자 / 이 땅 곳곳에서 핵 없는 세상을 기도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회 중 /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말씀의 선포 / 눅10:25~37 / 인도자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26.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27. 그가 대답하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2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29.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31.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32.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 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33.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34.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었다.

35.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36.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37.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 말씀의 나눔 /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 설교자

- 찬송가 218장 / 다함께

1.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2.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맘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3.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 세상의 외침 / 예배자료 2 / 말은이

- 중보 기도 / 말은이

- 찬송가 459장 / 다함께

1.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 가네 주만 따르네
2. 세상 영광위해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 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 가네 주만 따르네
3. 환난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 쓰리라  
변함 없는 진리 승리 하리라 기쁜찬송 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 가네 주만 따르네

- 권면과 파송 (일어서서) / 다같이

인도자 /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핵발전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고통당하는 이들 곁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곁, 고난 당하는 이들의 곁에 섭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위로하며, 함께 외칩시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회 중 /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핵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핵 없는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혜와 용기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 축도 (일어서서) / 설교자

## 예배 자료 1 - 설교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 눅10:25~37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후쿠시마 사태.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난 지 9년이 흘렀습니다. 올 여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지역 방사능 청소’를 지상최대의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후쿠시마는 과연 안전할까요? 일본정부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전사고 피해 난민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합니다. ‘안전하다. 돌아오라’고 발표하는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염작업이 이루어진 마을과 길가는 방사능 오염도가 낮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산기슭과 하천에는 방사능 수치가 정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린피스는 도쿄하계올림픽 성화 봉송 출발지인 후쿠시마 J빌리지에서 원전사고 이전보다 1,775배나 많은 방사선이 측정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방사능 오염물질로 둘러싸인 후쿠시마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 보상금이 끊긴 경제적 취약계층인 노인들이고, 정부가 짠 가격으로 임대하는 ‘부흥주택’이라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자피난민’도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러기 아빠처럼, 아버지는 방사능 오염의 위험지인 후쿠시마에 남아서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하고, 아이들과 엄마만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서 사는 가족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도 귀향하지 못한 4만 명의 피난민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귀환곤란구역인 나미에 마을로 7년 만에 돌아온 칸노씨는 사고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원전사고 당시 국가도 지방정부도 사고 자체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끊기고 TV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원전 사고 다음날 하얀 방호복을 입은 남자들이 굉장한 가스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어요. 그들은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고 차에서 내릴 생각이 없었지요. 차문을 두드리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자 그들은 차 밖으로 나와서 가스 마스크를 쓴 채로 소리쳤습니다. ‘이곳은 위험합니다. 여기서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그들은 사고 원전 반대 방향으로 30km 밖으로 제발 도망하라고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지요. 방사선은 냄새도, 색깔도, 맛도 없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복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원전 사고 없이 지진과 쓰나미만 있었다면 사람들은 이미 고향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고향을 빼앗고 사람들의 공동체를 파괴한 원전 사고를 생각하면 정말 슬프고 억울합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에서 원전을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해결책이 없는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면서 원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지속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집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월성원전 1호기가 고리1호기에 이어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내 최고령 원전인 월성1호기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전인 1970년대에 건설돼 1982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애당초 체르노빌 사고 이

후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위험한 핵발전소였습니다.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을 허가해 차수막(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방서성 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설비)이 손상된 상태로 5년이나 재가동 되었던 것입니다. 경제성을 빌미로 온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무책임한 정책결정이었습니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의 기쁜 선물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성원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질병으로 방사능 노출의 위험을 깨달은 월성지역 주민들은 이주대책위를 꾸리고 고향을 떠나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집과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균도네 소송을 알고 계시나요? 균도씨네 가족은 고리원전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균도씨는 발달장애를 겪고 있고, 아버지는 직장암을, 어머니는 갑상선암을, 외할머니는 위암으로 가족 모두가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이 겪는 암의 고통이 핵발전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전 방사선이 암을 일으킨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한수원 편을 들었습니다. 원전 인근에 살면서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 618명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소송의 판결도 곧 나올 예정인데, 균도네 소송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법의 정의를 기대하지만, 여전히 권력과 자본으로 기울어져 상식과 염치를 모르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영된 영화 “월성”에서 주인공인 나아리 주민 황분희 할머니는 즐겁게 물놀이를 하며 뛰어노는 손주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어린아이들의 몸속에는 어른들의 두 세 배가 넘는 방사능이 들어있습니다.”

### 우리가 무엇을 해야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는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십니다(9:51).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9:62), 자신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 70(2)명을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에 먼저 보내셨습니다(10:1). 돌아와 선교의 기쁨을 전하는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10:11).

이때 어느 마을에서인가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에게 다가옵니다. 이 율법교사는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랜 기간 식민지 지배 속에서 야훼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유대인들에게 ‘영생(영원한 생명)’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목표입니다. 당시 유대교 신학의 핵심은 ‘토라(율법) 순종’을 통한 ‘영생의 상속’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받은 율법은 생명입니다. 모세는 가나안땅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은 단지 빈 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신32:47)

율법에 능통했을 율법교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몰라서 예수에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의 72제자들이 마을에서 행했던 일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내쫓으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10:9,17)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유대교인들 모두가 바라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토라 순종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율법의 핵심인 정결법을 전혀 따를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가 길 위에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가 잘못되었다고 정면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시비에 예수는 율법을 통해 자신이 정당한 일을 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율법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는가? 율법교사는 으스스대며 율법의 핵심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는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율법학자들이 ‘생명’이라는 율법의 정신을 놓치고, 율법해석에 목을 매며, 앉아서 구원에 대한 개념정리만 해대는 어리석은 모습을 질타한 것입니다.

율법에 열심을 내었던 이들은 ‘이웃’이 누구인지 정의를 내리고 경계를 긋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웃’이란 ‘신앙의 동료’ 또는 ‘정치적-종교적 동지’ 혹은 ‘정당 동지’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는 율법의 핵심은 경계 밖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임을 이야기 합니다. 경건을 표방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자신들의 신앙문제와 율법해석을 놓고 싸우며 경계선을 긋느라 다른 사람들의 곤궁을 못 본 척 지나쳐 갑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나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는 경계 안에 갇혀 그 안에서의 영생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포함한 세상 속으로 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밖 세상으로 나가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 누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예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교 모든 종파들로부터 똑같이 미움받고 경멸을 받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유대교 종교밖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자이고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뽐내는 집단들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잘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을 본다면 우리야말로 강도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떠한 해결책도 만들 수 없는 핵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머리 위해 핵구름을 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적인 지진과 해일의 위험 속에서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사는 도시 가까이에 핵발전소를 지었습니다. 핵발전소는 부실시공과 조작미숙으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용후핵연료인 방사성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맥스터라는 임시저장시설에 모아두었습니다. 열과 방사능을 뿜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꺼낸 직후 수조에서 10년 정도 냉각상태로 있다가 나와도 방사능 기준치의 1억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10만년을 더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최소 10만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술이나 장기저장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성장과 효율성이라는 이상 앞에 우리의 목숨을 바친 모양입니다. 우리는 거의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와 상처를 싸매주고 생명을 돌봐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심밖에 있었지만, 고통 속에서 2000여일을 버티며 생명을 위해 싸우는 월성 이주대책위 주민들입니다. 원전 마피아의 손을 잡은 대법원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군도네 가족입니다. 후쿠시마의 위험을 알리고 핵발전소 폐쇄를 위해 싸우는 원전사고 피해자들입니다. 트럼프에게 ‘분노조절이나 잘 하라’고 비아냥을 받은 17세 환경운동가 튜베리입니다.

우리는 이들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며,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들의 손을 잡아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그들도 함께 삽니다. 이들을 사랑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을 잡는 것은 그들의 현장으로 꼭 달려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과 번영과 편리를 좇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소비가 미덕이다 외치는 자본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에너지 소비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고통과 눈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권정생 선생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늘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십자가 대신 똥짐을 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영의 바람이 함께 할 것입니다.

\* 표준설교문은 김준표 목사(촛불교회 담당목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예배자료 2

### 경주 월성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편지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 2가지를 말씀드려 봅니다.

#### \* 삼중수소

얼마전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항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제 가슴은 또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삼중수소”였습니다

삼중수소는 오랜 시간 노출되면 유전병을 일으키는 방사능이라고 뉴스에서 기자가 말씀하시는데 제 가슴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와 저의 손주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 몸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삼중수소”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월성1,2,3,4호기, 신월성 1,2호기가 40년째(월성1호기는 현재는 멈췄습니다) 돌아가며 사람들에게 40년째 방사능 피폭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적은 양 이라도 40년입니다.

우리 몸, 내 손주의 건강 “유전병”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오기 전에 하루빨리 이주대책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 맥스터 추가건설

지금도 고준위 핵폐기물이 45만다발, 전국의 52%가 우리 마을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마을에 또 맥스터를 추가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한참 지난 월요일 한수원에 맥스터 추가건설을 위한 자재가 반입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몰래,

아직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와 함께 재공론화 준비과정에 있는, 건설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맥스터 추가건설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논의도 하지 않았는데, 맥스터 추가건설 자재가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월성원자력발전소에 반입된 것입니다.

한수원의 일 하는 방식인 거 같습니다.

늘 그랬듯이

국민의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참 비굴하기 그지없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도 선결설로 인한 매몰 비용 정부추산 2조 6천억원과

월성1호기 재가동 때 7000천 억 선투입 되어 멈추면 국민적 손실이라며 어물적 넘어가더니, 한수원의 습관일까요?

이제는 안됩니다.

국민과 지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올바르게 된 재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주민 그리고 시민과 국민의 뜻을 모은 후 핵발전소 최인접마을 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치고 지치니 내 머리는 이런 생각 합니다.

“방사능” 몸속에 있어도 되는 건가?

한수원 관계자는 “아톰”이 되고 “히어로”가 될 수도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내 아이가 방사능 공기를 마시고, 방사능 음식을 먹으며, 몸속에 방사능이 축적되며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와대도 산자부도 한수원도 월성본부도 경주시청도 우리의 요구에 미안은 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각자 기관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의 이주대책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할까요?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

## 영광 한빛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편지

**정부는 한빛원전 3·4호기 부실공사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해야한다.**

한빛핵발전소 3·4호기는 89년 12월 21일 건설허가를 취득하였다. 3호기는 이를 뒤인 23일 최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4호기는 90년 5월26일 최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설사업이 진행되었다.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영광지역 내에는 현대건설이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가 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다.

영광군민들과 광주·전남시도민들 뿐만 아니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국내의 환경·종교·시민단체 등이 부실공사에 대하여 항의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반핵단체 운운하면서 전면 무시하였다. 27-8년이 지난 2019년 3·4호기에서 200여개 이상의 구멍이 발견되었으며 급기야는 가로 331cm, 세로 97cm, 157cm짜리 대형구멍이 발견되었다.

당시 한전은 영광군민들이 집회와 시위 농성 등을 통하여 부실공사의 대책을 요구하자, “부실시공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내외의 엄격한 기술기준과 외국기술진이 합동으로 철저한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각 단계의 관리 감독과 품질검사, 규제기관의 사용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부실공사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앞으로 “부실공사 운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오해 소지를 없애고 일부 단체들에 의해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예실추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관계 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겁박하는 등 1994년 6월 영광군민들에게 드리는 글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 하였다. 이것이 영광군민들의 3·4호기 부실공사 우려에 대한 한전의 대응 이었다.

한빛원전의 부실공사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원전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로부터 건설허가를 득해야 하며, 건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설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근거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적절성 여부와, 건설업체의 감독, 건설소의 관리·감독, 건설소와 독립적인 본사의 품질활동, 규제기관의 사용전 검사 등 다중의 체계가 있어 절대적으로 부실공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당시에 부실공사의 소문과 제보는 수도 없이 많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하여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증기발생기 내의 망치, 냉각재펌프 내의 드라이버 등 원전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또 어느 곳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일이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한빛원전에서 일어난 일은 있어서도 안되며,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형구멍에 대한 한수원의 향후계획을 즉각 중단시켜라.

한수원의 향후 계획인 구조물 건전성 평가를 8월 중으로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05회 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구조물건전성평가를 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불만족시에는 약 7개월이 소요되는 콘크리트 타설을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의결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영광군민들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콘크리트 구멍은 격납철판을 망치로 두드려서 하는 타격방법을 사용하였다. 타격방법으로는 격납건물내부의 공극형태나 자갈 몰림현상, 다짐불량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설계에 근거하여 철근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등 어떤 것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전성 평가가 가능한가이다. 또한, 한수원이 추진중인 건전성 평가 업체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로 그 동안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였으나, 열폐수 확산범위가 적게는 수 십 배 많게는 수 백 배의 차이가 나는 결과를 도출하여 제출한 곳으로 이미 신뢰성이 없는 업체인 것이다. 또한, 한수원과 같은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셀프조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영광군민들의 불신을 또다시 자초하는 일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각 위원회 회의를 재소집하여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범죄현장을 훼손하는 한수원의 계획을 그대로 수용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다중의 관리 감독과 품질업무, 사용전검사 등을 통하여 부실공사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광군민이 주축이 되어 구성·운영된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서 확인된 것은 27-8년 동안의 모든 감독체계, 규제체계가 실패했다는 증거물이기도 하다. 건설단계, 운영단계에서 수많은 건전성평가, 안전진단용역 등을 하였으나, 발견해내지 못한 구멍을 영광범군민대책위가 요구하여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단 몇 개월 만에 찾아내었다. 이는 원안위가 국민을 위한 규제를 하고 있는지? 안전보다는 원전의 가동에 주안점을 두고 규제를 하는 기관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한수원이 제출한 향후계획의 수용은 원안위가 조금만 더 검토를 하였다면 불가능하였다. 그 이유로는 레미콘 작업 시 철근 및 시스관, 관통구, 보강재 등의 간섭물로 인하여 자갈 몰림 현상이나, 내부공극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의 증거로는 당시 91년도에 발행된 지적사항표를 검토하면 바로 드러나는 문제이며 사용전 검사에서 이미 지적한 사항이다. 또

한, 이는 199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역주민이 증언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빛3·4호기를 폐쇄하라.**

그 동안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한수원과 협의를 하면서 확인한 내용은 격납건물 내부의 설계내용대로 철근이 설치되었는지? 구멍이나 자갈 몰림 현상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는 부실공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격납건물 내에 얼마나 많은 구멍이 있는지 확인이 않된 상태에서는 건전성평가는 불가능하며, 건전성평가 시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건전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 다시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관계에 불신만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국민이 원전의 건설·운영을 위임받은 한수원이 부실공사, 부실운영 등으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불성실한 운영 등으로 국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규제기관의 행태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안전을 확인할 수 없다면 한빛3·4호기는 폐쇄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부실공사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한수원이 향후계획으로 내어놓은 건전성평가와 보수계획을 즉각 중단시켜라.**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김용국 집행위원장

## 예배 자료 3

### 현안 이야기

#### 1. 핵발전소 현황



〈2020년 2월 26일 현재 핵발전소 운영현황,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고리 1호기는 영구폐쇄, 월성 1호기 영구폐쇄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신고리 3,4호기가 금번 정권에서 새롭게 가동되어 상업운전을 시작함에 따라 현재 24기의 핵발전소가 상업가동중이며, 그 중 계획 예방정비로 가동을 멈춘 곳이 7곳으로 19기가 운전 중입니다. 월성 1호기의 경우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구폐쇄를 의결했으나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현재 미래통합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확인 후 결정을 내리기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 2. 2019년 핵발전소 사건·사고

##### (1) 영광 한빛핵발전소 공극발견(2019년 하반기)

현대건설이 건설한 한빛 3,4호기 격납건물(원자로를 싸고 있는 건물, 핵사고시 방사성물질 유출을 막는 최종저지선)에 250여개의 공극(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큰 공극은 약 150cm에 이를 정도로 큰 공극입니다. 건설당시부터 건축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건설을 진행했다는 증언이

있었고, 이를 따라 추정하기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건설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상황입니다. 사실이라면 전반적인 부실공사였던 것입니다. 현대건설측은 책임을 질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로 20년 이상을 가동했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고창지역 주민들은 뒤에서 다들 1호기 출력급증 사고와 더불어 이 부분을 문제 삼아 1,3,4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싸움을 벌이고 계십니다.

## (2) 영광 한빛핵발전소 1호기 출력급증 사고(2019년 하반기)

한빛핵발전소 1호기에서 제어봉 성능 시험 중 출력이 급증하여 연료봉 손상이 일어날 뻔 했던 사고입니다. 관리미숙과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동으로 핵발전소를 정지시켰고, 다행히 연료봉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작은 실수와 미숙함이 핵발전소에 얼마나 치명적인 사건을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안위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CCTV를 설치하여 조작 시 실수나 법규위반 등을 감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 3. 지역 현안

### (1) 영광, 고창 - 한빛 핵발전소 지역

앞서 발견된 공극의 문제와 1호기의 사고로 인해 지역에서는 한빛 1,3,4호기의 조기폐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핵발전소이므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조기폐쇄 해야 하는 발전소 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영광지역대책위 김용국 집행위원장은 착공될 때부터 날림과 부실로 인해 위험한 핵발전소가 한빛핵발전소였고, 특히 5,6호기의 경우 지반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 (2) 경주, 울산 - 월성 핵발전소 지역

#### 1) 일상적 피폭

월성은 현재도 지역 주민들이 이주대책위를 꾸리고 활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살아가는 주민들은 삼중수소가 소변에서 검출되고, 가족력이 없는 갑상선암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방사성 물질로 인한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기준치 미달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싶어도 집이 팔려야 이사를 갈 텐데 누구도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않는 동네가 되어버려 이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2) 맥스터 추가건설

월성 핵발전소는 농축우라늄 대신 우라늄광석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중수로형이고, 이러한 발전소의 형태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가 다른 가압형 경수로에 비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에 아직 공간이 남아있는 다른 지역 핵발전소에 반해 월성은 이미 몇 년 전에 맥스터라고 하는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장시설 역시 조만간에 가득 차게 됨에 따라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을 추가 증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풀기로 하고, 다른 지역의 사용후 핵연료 문제까지도 함께 다루는 공론화를 진행기로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이미 한차례 진행되어 결론에 도달한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온갖 문제로 인해 파행을 겪고 환경단체는 전부 보이콧 한 상황에서 진

행된 공론화는 지역에 임시저장시설을 짓고, 그 임시저장시설에 향후 50년간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할 상황에서 최종처분시설을 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론화 결과에 대해 환경단체를 비롯한 탈핵운동진영에서 꾸준히 문제제기 했고, 산자부 등에서 재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하였지만 이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결론에 다다를 상황으로 보입니다. 산자부 등에서는 어떻게든 문제없이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공론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공론화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한수원에서 월성에 맥스터를 추가건설 하기 위한 건설자재 등을 반입하는 등 월성 핵발전소 가동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역대책위와 환경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고, 특히나 경주시내보다 가까운 울산 북구의 주민들 역시 이러한 상황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대해 경주 주민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울산 시민들의 의견을 배재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의 상황은 단순히 월성의 문제를 넘어서 다른 핵발전소 소재지역에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가 핵시설의 건설로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은 핵발전소가 폐로 된 이후에도 50년 이상을 핵시설 소재지 주민으로 남게 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주민들은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서울에서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입니다.

### (3) 고리, 신고리 - 부산, 울산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건설에서 다루었다시피 재검토위원회의 졸속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리 3,4호기 상업가동 승인 이전 원안위가 여러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업가동 승인을 낸 부분이 있었으나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탓에 그대로 상업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고리, 신고리 문제 외에도 기장군에 건설계획 중인 연구용 원자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진과 안전 문제로 그간 건설허가가 보류되어 왔던 연구로를 원안위가 승인한 것입니다. ‘연구용 원자로’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발전용 원자로와 달리 중대사고에 대해 관리계획을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 및 액체와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의 배출계획서가 제외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박현주 대전탈핵희망 대표는 연구용원자로가 규모는 작더라도 출력대비 기체 방사성폐기물 배출량이 상당하다는 것을 대전 ‘하나로 연구로’를 통해 확인했으며, 핵발전소 주변지역과 달리 주민보호와 연구로 시설을 감시할 수 있는 법체제도 미비하다며 연구용원자로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 원자로라고 하는 용어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원자로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맞을 것입니다.

### (4) 대전 -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한 대전에서 세슘 등 핵종이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이 방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액체 방사성 물질들을 모아서 자연증발 시키는 시설에서 실수로 인해 오염수가 흘러넘쳤고, 이것이 하천으로까지는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이미 앞서 방사성 물질들을 불법매립하거나 고철로 고물상에 파는 등 다양한 안전불감증적 태도를 보여 왔던 원자력연구원의 발표를 믿기란 참 힘든 상황입니다.

## 4. 추가 자료

일명 균도네 소송이라고 불리는 소송이 있습니다. 1심은 균도씨의 어머니의 갑상샘암으로 인해 승소하였지만 항소심부터 법원이 원전 방사선과 암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항소심의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패소로 인한 소송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균도네 소송을 진행하던 이들은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600여명의 고리원전 인근 갑상샘암을 겪은 환자들의 집단소송 역시 이 판결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상황입니다.

## 예배 자료 4

### 2020년 탈핵예배 중보기도

주님, 내 곁에 눈물짓는 이웃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용한 전기가 누군가에겐 폭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누군가에겐 건강의 위해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웃의 불행 위에서 내 행복을 얻는 삶을 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웃들은 아직도 여전히 고통 속에서 눈물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생명의 하나님,

핵발전소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매일같이 핵발전소가 배출하는 방사성 물질들로 인해 방사선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가족력도 없는 갑상선암 환자가 늘었습니다.

정부와 관계부처에 아무리 호소해보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기준치 미달이라는 답변입니다.

소송을 해보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핵발전소 뿐이 아닙니다.

핵발전소로 인한 수많은 고압송전선로 건설은 지역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한 핵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다시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핵발전소를 끊임없이 가동하기 위해 지역의 주민들을 슬픔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강도 당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여주십시오.

저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스런 숨결에 귀기울이게 하여주십시오.

우리가 저들의 상처를 끌어안고 치유하는 이웃이 되게 하여주십시오.

우리가 저들을 싸매고, 위로하며,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주십시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예배 자료 5

### 핵 없는 생명평화의 세상을 위한 기도

주님께서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꿈꾸어서도 안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핵발전소는 편리해보이고, 깨끗해보이고, 풍요로워보였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소는 한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멸로 가져가고  
모든 생명을 송두리째 죽음으로 이끌고 있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오 주님, 핵발전소는 이 시대의 선악과였습니다.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채 했고, 외면했습니다.  
체르노빌은 먼 나라 일이라고 구경만 했습니다.  
후쿠시마는 특별한 일이라고 애써 태연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곁에 수많은 핵발전소가 있었습니다.  
그 숫자의 크기를 늘여가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소서.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함과 용기 없음을,  
이제 조금은 불편해도, 조금은 어려워도, 조금은 가난해도,  
핵발전소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가며 살겠습니다.  
이 땅 곳곳에서 기도하며 뜻을 모으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예배 자료 6

### 〈성명서〉

교회는 핵발전소로 고통 받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누가복음 10:36)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일어난 쓰나미는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 보태어 후쿠시마 제1원전의 비상전력상실로 인해 냉각수 공급이 끊기는 사고로 인해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와는 또 다른 피해를 낳았습니다. 지역은 방사성 물질에 뒤덮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 일본정부는 사람들을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할뿐더러 그곳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고, 그곳에서 난 음식을 각국의 올림픽 대표팀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노심용용으로 인해 녹아내린 연료봉을 식히기 위해 끊임없이 투입되는 냉각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제염(오염을 제거함)을 위해 표층으로부터 끌어낸 흙을 담은 자루를 방치해둔 바람에 태풍으로 인해 방사능 오염 토양이 유실되는 초유의 사건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이미 지나갔거나, 끝난 사고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고라고 보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아무 대책 없이 심각한 피폭에 내던져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의 수습을 책임져야 할 일본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최악의 결정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난민들의 지원금을 끊는 정책으로 피난민들의 귀환을 종용하고 있으며, 사고의 피해를 축소, 은폐하는 것을 통해 자국민을 속일 뿐 아니라 올림픽에 참가키로 한 국가들에도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재앙이라면 우리의 곁에도 이런 재앙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핵발전소 인근의 주민들입니다. 온갖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독성 방사성 물질들이 자신의 삶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입니다.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때 더 이상 핵관련 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소 가동이 멈출 상황이 되자 보란 듯이 다시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의 사용후 핵연료 보관시설을 건설을 시도합니다. 이미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갑상선암과 같은 질병들을 겪었지만 보상이나 이주를 도울 정부는 이들에게 없습니다. 경주와 울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이들의 안전이나 생명보다는 핵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만을 이야기합니다.

월성 핵발전소만이 아닙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6기의 핵발전소 중 3,4호기는 콘크리트 격납건물에 수 백 개의 공극(구멍)이 뚫린 채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시 최종적으로 안전을 책임져야 할 건물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1호기는 지난해 제어봉의 성능을 시험하려다 심각한 사고를 겪을 뻔하고, 수동으로 핵발전소를 정지시킨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지난 후 아무렇지 않게 다시 가동 승인이 나고, 가동이 되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민들의 의사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조

작미숙과 수직위반 등이 있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조종실 내부를 확인하는 정도로 이 사고를 무마하고 재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공론화를 비롯해 수많은 문제들이 핵발전소를 둘러싸고 일어납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한 대전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송전선로 문제로 고통을 겪은 밀양을 비롯한 많은 지역도 핵발전소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핵발전소가 온갖 비리와 부패를 거짓으로 감싸는 동안 피해를 입은 것은 지역의 주민들이었습니다. 강도당한 사람마냥 폭력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핵은 태생부터 폭력적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무기로 개발된 순간부터 평화적 이용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핵발전소로 우리 곁에 남아 있을 때까지 어느 한순간도 안전한 적도, 깨끗한 적도, 평화로웠던 적도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이웃들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폭력을 행사했고, 그들의 삶을 불안과 공포로 몰고 갔습니다. 이제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때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고통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싸매고, 치료하는 일에 이제 나서야 합니다. 교회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법률의 한계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위협에 노출된 채 살아가야 하는 이웃들을 위해 탈핵과 피해보상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모든 폭력의 근본 원인인 핵발전소를 벗어나기 위한 에너지전환과 절감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물 위에서 우리의 풍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이웃의 눈물을 닦으며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일에 이제 교회가 나설 때입니다.

## 예배자료 7

###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

한국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에 대한 신앙적 입장을 고백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19년에는 3.1운동에 참여하여 민족의 해방을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질서를 대망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군사독재에 저항하면서 고난당하는 민중과 연대하였고, 1980년대에는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신앙적 과제를 고백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였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신앙고백의 전통 위에서 다시금 우리 시대의 징조를 읽는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비폭력 만세운동으로 조선의 자주독립을 만방에 선언했던 것처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에서 ‘핵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신앙적 과제라 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핵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과학기술공학체제(Technocracy)와 대량살생의 군사무기 및 무한성장을 통하여 지정학적 패권을 차지하려는 경제체제의 융합으로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권력체제이다. 이러한 핵은 하나님 없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골 2:15, 엡 6:12)의 절대 권능에 대한 욕망이고, 과학과 기술의 이름으로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사 9:6, 욥 25:2, 담전 6:15)을 거부하고자 하는 현대판 선악과 사건이며, 또한 하나님이 지으시고(창 1:1) 사랑하신(요 3:16) 모든 지구 생명체를 멸절시킬 수 있는 “사망의 권세”(시 49:15)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핵과 기독교 신앙이 양립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한다.

#### 피폭자의 자리에 서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피폭자’(被爆者)의 자리에 서서 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려 한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피해자의 10분의 1은 한국인이었다. 그들은 일본 식민주의에 의해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원폭박물관에는 한국인 희생자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줄도 없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오늘도 사람들의 망각과 무관심 속에 고통 받으며 살고 있다. 우리는 또한 지난 30여 년간 이 땅 위에 지어진 수많은 핵발전소로부터 많은 피폭을 경험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이 땅 위에 핵무기가 배치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핵에 대해 우리의 신앙적 입장을 밝히는 삶의 자리이고 상황이다. 우리는 핵보유국의 눈이 아니라 피폭자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보려 한다. 과학기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생명의 관점에서 보려 한다. 그리고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세대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자리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려 한다. 나아가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을 포괄하는 전 우주적 생명공동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 핵은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

우리는 먼저 핵무기(nuclear weapons)는 군사용이고 핵발전(nuclear power plant)은 평화용이라는 거짓

구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원자력은 처음부터 군사적 이용, 즉 원자탄개발을 위해 시작되었다. 원자로는 보통 발전(發電)을 연상시키지만, 원자로란 본래 우라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라늄238을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239로 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장치이다.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발산시키는 것이 핵무기이고, 그것을 천천히 발산시켜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핵발전이다. 태생적으로 핵무기와 핵발전의 뿌리는 같다. 실로 수많은 나라들이 민간 핵발전의 덮개 아래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렇듯 핵발전은 핵무기에 대한 욕망 위에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구호에 동의하지 않는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동전의 양면이다. 핵은 결코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 더욱이 핵발전이 많아지면 평화를 더욱 위협한다. 핵발전소에 대한 군사적 혹은 테러 위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핵발전소는 현대 비대칭 전쟁에서 공격목표 1번 중 하나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의 핵발전소들은 북한 장사정포의 전략적 타격지에 포함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핵은 원료를 생산하는 지역의 평화도 위협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우라늄 부족은 수 십 년 전부터 분쟁의 씨앗이 되어 왔다. 설상가상으로 우라늄은 오래전부터 투기의 대상물이어서, 그것을 둘러싼 전쟁은 석유를 둘러싼 전쟁처럼 세계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핵은, 그것이 무기든 발전이든, 결코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핵무기의 전면적 폐기와 핵발전의 완전한 종결을 요구한다. 핵우산을 통한 방어든, 핵 공격을 통한 방어든, 핵을 통한 안보는 진정한 안보가 아니다. 각국 정부는 더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핵에너지 체제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거기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 핵발전은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

세계 핵산업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핵발전소 폭발과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대참사 이후 급속히 쇠퇴하는 듯 했지만, 지구온난화를 빌미로 기사화생했다. 하지만 우리는 핵에너지가 기후변화의 대안 에너지가 아님을 분명히 선언한다. 핵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저탄소 청정에너지가 결코 아니다. 설사 발전부문에 국한해서 핵발전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핵발전의 전 과정에서, 특히 우라늄의 채굴과 가공 및 농축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발전부문에 있어서도 핵발전은 낭비가 심한, 매우 비효율적인 에너지다. 물리적으로 핵발전 과정에서는 핵분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단 3분의 1만이 전력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섭씨 30도가 넘는 온배수(溫排水) 형태로 바다에 버려져 생태계를 오염시킨다. 설상가상으로 핵발전은 전력낭비를 조장하는, 극도로 융통성이 떨어지는 에너지다. 핵발전은 한번 가동하면 전력수요에 맞추어 출력을 조정하지 못한다. 낮이나 밤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1년 내내 동일한 출력으로, 그것도 언제나 최고의 소비 시점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해야만 한다. 그래서 핵발전에는 언제나 ‘남는 전기’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 ‘심야 전기’ 사용을 권장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한 사회의 에너지 소비 전체를 과도하게 만들어 오히려 지구온난화에 기여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은 전 세계 총 에너지 수요의 고작 2%만 충당할 뿐이다. 이와 달리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는 오늘날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13%를 충당하고 있다. 결국 화려한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핵은 틈새기술에 불과하며 기후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적 에너지가 아닌 것이다. 수많은 연구와 사례들은 이미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로 인류의 에너지 공급을 100% 충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가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로부터 탈피하여 재생가능 자연에너지의 시대를 여는 것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햇빛과 바람과 지열과 파도 등의 자연에너지

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길임을 확신한다. 핵발전은 오히려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전력낭비를 부추기며, 미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투자를 억제한다. 핵에너지와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는 양립할 수 없다. 핵에너지는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로 가는 징검다리 에너지가 아니다. 핵무기가 세계평화에 대한 틀린 해법이었듯이, 핵발전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잘못된 해답이다.

### 핵폐기물로 인한 지구오염과 생명파괴는 창조질서의 파괴이고 신성모독의 죄다

인류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도 세우지 않고 핵발전소를 지어왔다. 하지만 단 1그램의 핵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는다. 이른바 폐연료봉의 재처리도 더 많은 핵폐기물을 만들어낼 뿐이다. 인류는 아직도 핵폐기물의 최종보관을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핵폐기물은 100만년 동안이나 방사선을 내뿜지만 그것을 생태계와 격리시키는 인간의 드림용기 수명은 고작 40년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까지 고준위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 보관할 장소는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수조에는 폐연료봉이 ‘임시로’ 보관되어 있다. 우리는 이 폐연료봉들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또 한 차례 핵폐기장 문제를 놓고 한국사회가 깊은 분열과 진통을 겪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핵폐기물을 떠넘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대손손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며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오염시키는 것은 그것을 지으신 분에 대한 모독이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생명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명의 축복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 에너지 탐욕과 소비주의에 기초한 핵문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핵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맘껏 사용하는 호사를 누렸다. 실로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가 9기던 1991년에 2,312kWh이던 1인당 전력소비량은 2005년에 7,403kWh로 3배나 증가해 이미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를 앞섰다. 2010년에 우리나라는 그 4배나 되는 9,493kWh의 전력을 소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국민은 ‘핵생산자’, ‘핵소비자’, 나아가 ‘핵가해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잔치’는 끝났다. 이제부터 우리는 핵발전소 폐쇄라는, 예고된 문제와 직면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핵발전을 통한 전기의 풍요라는 ‘단맛’을 봤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핵발전소 폐쇄와 핵폐기물의 처리라는 ‘쓴맛’을 보아야 한다. 1950년대 시작된 인류의 핵발전은 이제 공통적으로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의 폐기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1978년 부산 기장에 고리발전소를 지으면서 매 18개월마다 1기씩의 속도로 지금까지 총 25기의 핵발전소를 지어왔다. 이제 우리는 매 18개월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1기씩의 핵발전소를 철거해나가야 한다. 핵발전소 1기당 철거해제 비용은 무려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짓 풍요의 기초를 냉철히 돌아보아야 한다. 산업화를 위한 에너지의 과용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무한 경제성장과 이윤극대화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체제는 에너지 과소비와 소비주의로 귀결됐다. 이제 우리는 끝없는 에너지 탐욕과 소비주의에 기초한 핵문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2011년 3월의 후쿠시마 대재앙은 인류가 핵으로부터 시급히 문명사적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인류에 대한 커다란 경종이었다. 당장의 소비지향적 삶을 위해 사회와 자연에 해악을 끼치는 길은 ‘멀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다. 이와 달리 절제와 인내로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를 촉진하려는 노력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다.(마태 7:13-14)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사용량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핵발전에 몰두해왔다. 2030년까지 약 40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에는 핵발전소를 전략 수출산업으로 지정했고, 2011년 후쿠시마 대재앙을 계기로 앞으로 20년 동안 전 세계에 80기의 핵발전소를 수출해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3대 핵발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을 세운바 있었다. 아울러 2014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서 재처리연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한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핵 재처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핵발전은 결코 녹색발전이 아니며 핵안보는 생명안보가 아님을 우리는 선언한다. 핵무기는 국가나 세계의 안보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위협한다. 진정한 안보는 핵보유국들의 안전이 아니라 전 지구생명공동체의 안전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요한 14:27)가 될 것이다. 진정한 안보는 핵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편 121:1-2) 핵발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핵발전 사고는 매일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매일 일어나고 있다. 핵발전은 실수 없는 인간을 요구하지만,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 핵은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다. 핵은 오히려 사회와 국가 그리고 지구 전체의 생명안보를 위협하는 자멸의 길이다. 우리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핵발전에서 벗어나 재생가능 자연에너지에 기초한 진정한 녹색정책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

## 세계 최대의 핵 밀집 지역인 동북아시아에서 생명의 연대가 시급하다

2017년 현재 한국의 24기를 비롯해 일본의 43기, 중국의 36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전세계 449기의 핵발전소가 운영중임을 감안했을 때, 세계 발전소의 23%가량, 104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동북아시아는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 지뢰밭’이다. 만약 앞으로 다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확률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다. 중국과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고, 일본은 핵무기 비보유국이지만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00년 당시 약 30톤이나 되는 막대한 잉여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약 1,000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한 복판에 서서 핵보유국들 기득권의 안보가 아니라 인간과 생명의 안보가 시급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생명의 연대를 이루는 일은 세계평화에 핵심적인 의제다.

## 핵과 기독교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

핵무기와 핵발전은 권력과 폭력의 상징이다. 그것은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욕망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다. 그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이다. 절대 권능에 대한 금단의 유혹이다. 이러한 핵으로 인간은 정복과 탐욕의 체제를 만들었으며, 그 체제는 지구생명공동체 전체를 멸절시킬 수 있는 전쟁과 피폭과 오염의 문제를 낳았다. 이러한 체제는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 과학자들은 CP-1이라는 이름의 세계 최초의 인공 원자로가 미국 시카고대학 운동장에 지어지면서 인간이 가히 조물주의 영역에 들

어서게 되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마음이 교만 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신이라고 하고 내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너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에스겔 28:2).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 죄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유형의 교만이다.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그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이러한 혼동 속에서 죄인은 자신을 거짓 신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핵과 기독교 신앙이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핵무기를 지지하거나 핵발전을 옹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둘은 모순어법이기 때문이다. 핵은 하나님 없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골 2:15, 엡 6:12)의 절대 권능에 대한 욕망이고, 과학과 기술의 이름으로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사 9:6, 욥 25:2, 딤후 6:15)을 거부하고자 하는 현대판 선악과 사건이며, 또한 하나님이 지으시고(창 1:1) 사랑하신(요 3:16) 모든 지구 생명체를 멸절시킬 수 있는 “사망의 권세”(시 49:15)이다. 핵무기는 욥기 41:1-34에 나오는 ‘레비아탄’을 연상시킨다. 지구 곳곳에 시한폭탄처럼 박힌 핵발전소들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마가 13:14)을 연상시킨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제6차 총회의 결의대로, 핵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며, 생명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을 힘을 통해 다스리고자 하는 집권자들 앞에서 섬김과 나눔과 사랑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죽음에 대한 사랑(necrophilia)에 빠져들어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으시는 생명의 영을 거부하는 것이다.

### 그리스도인 행동강령

지금 우리는 ‘핵무기와 핵에너지’로 말미암은 총체적 생명의 위기 앞에 서 있다. 이제 우리는 핵 위주의 에너지 과다소비 사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재생가능 자연에너지 중심의 생태적인 사회로 갈 것인지를 갈림길에 서 있다. 40년간의 광야생활 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살려거든, 이제 생명을 택하여라”(신 30:19)고 명령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피폭자들의 고통과 죽음을 나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화의 길이 되어주셨다. 성령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시며(롬 8:22) 모든 생명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일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서서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1. 우리는 핵이 주는 환상과 유혹, 그리고 핵에 대한 우리의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영적 각성이 이 시대의 신앙적 과제임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핵의 실상을 바로 알리고, 피해자의 아픔을 나누며, 피폭자의 고통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 앞장선다.

2. 우리는 핵에 대한 정보와 의사결정이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핵관련 정보의 숨김없는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이같은 중차대한 문제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사회적 결정을 통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한국정부가 핵발전을 중심으로 한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포기하고 핵발전소 부품을 수출하는 핵무역에서도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핵산업과 핵에너지 사용산업에 국민의 세금을 근거로 한

국고지원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원자력 홍보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국민의 전기요금 3.7%를 일괄 배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4. 우리는 각 정당들이 탈핵 정책을 입안하고 채택하도록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한다. 또한 우리는 한국의 기업들이 핵산업과 핵에너지 사용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재생가능 자연에너지 산업과 이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할 것을 적극 권고하도록 하는 윤리적이고 사회책임적인 투자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5. 우리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핵에너지와 결별하고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를 통한 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탈핵 에너지 전환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한다.

6.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 밀집 지역임을 인식하고 ‘핵 없는 세상’을 이 루기 위한 동북아시아 그리스도인 생명연대를 적극 추진한다.

7. 우리는 생명의 지혜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교·문화·사상을 수렴하고 융합하면서 새로운 생명문화 의 창조에 나선다. 특히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이웃종교와의 생명연대를 적극 모색한다.

8. 우리는 과학 없는 종교가 미신에 빠질 수 있듯이, 종교 없는 과학이 흥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기술만능적이고 공리주의적인 과학윤리를 비판하면서 핵문제에 대한 종교와 과학간 대화를 제안하 고 실행한다.

2012년 3월 1일

2017년 4월 24일(개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 한국YMCA전국연 망 / 한국YWCA연합회 / 기독교대한감리회 환경선교위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 한국기 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 예수살기 /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 /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 고 기교회 /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 감리교 농촌목회자협의회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기독교수협회 / 기장 생명선교연대 / 기장햇빛발전협동조합 / 생명평화마당 / 생명평화기독연대 / 성공회 생명과환경위원회 / 전 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정의평화기독인연대 / 하나누리 / 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 / 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 합회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가재울녹색교회 / 강남향린교회 / 계동교회 / 새민족교회 / 지평교회 / 청지 기교회 / 평화마을교회 / 함께여는교회 / 향린교회 / 흥덕새누리교회 /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성문밖교 회